먹거리 소중히 여기는 마음, 지구 지키는 실천

상불사

유기농 텃밭 무료 분양

정문 450 · 후문 250평 규모로
한 가구 4평씩…20가구 참여
“기후행동, 지금 당장 나부터”


상불사 주지 동효 스님은 20여 년 가까이 시민들에게 사찰 텃밭을 무료로 분양하며 일상 속 환경 실천을 이끌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먹거리를 직접 기르고 필요한 만큼 소비하며 남은 것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일에서도 가능하다. 하남 상불사(주지 동효 스님)는 20여 년 가까이 시민들에게 사찰 텃밭을 무료로 분양하며 이같은 일상 속 환경 실천을 이끌고 있다. 농약과 화학비료 없이 작물을 기르고 수확하는 과정에서 먹거리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자연과 상생하는 가치를 일깨우기 위함이다.

상불사 텃밭은 동효 스님이 2005년 주지를 맡은 뒤 3년 여가 지나 시작됐다. 사찰이 가진 공간을 지역사회와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한 결과였다.

동효 스님은 “앞서 주지를 맡으셨던 아버지 스님께서 큰 도량을 마련하셨는데, 그 뜻이 우리만 잘살라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지역과 나라, 나아가 전 세계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우리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자는 생각으로 텃밭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상불사는 정문을 올라오면 만나는 450평 규모의 밭과 후문 쪽 250평 규모의 밭을 운영하고 있다. 한 가구당 4평씩 분양하며, 현재 20가구가 참여한다. 불자뿐 아니라 사찰을 찾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농사 경험이 부족하거나 바쁜 일상으로 밭을 돌보기 어려운 참여자들을 위해 사찰이 관리와 재배 안내도 돕고 있다.

텃밭에서는 계절에 따라 깨, 가지, 고추, 파, 상추 등 다양한 작물을 기른다. 올해는 고추 농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 배추와 무를 심어 다음 수확을 준비하고 있다.

수확물은 가정에서 먹거나 사찰음식 재료로 활용한다. 참여자들은 텃밭을 무료로 분양받는 대신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시금을 내는데, 이렇게 모인 보시금은 지역 불자 자녀 장학금과 이웃돕기에 쓰인다. 먹거리를 기르고 나누는 일이 다시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5살 강별하 아동에게 제공된 텃밭.

동효 스님은 “직접 씨앗을 뿌리고 작물을 길러 식탁에 올려보면 한 끼의 음식이 결코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며 “텃밭은 먹거리의 소중함을 배우는 곳이자, 함께 땀 흘리며 서로 돕고 나누는 관계를 만드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동효 스님은 사찰음식에 관심을 가지면서 텃밭의 의미도 더욱 깊이 새기게 됐다. 먹거리를 소중히 여기고 낭비를 줄이는 태도가 생명을 존중하고 식재료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사찰음식의 정신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동효 스님은 “사찰음식에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식재료가 가진 본연의 맛을 잘 살리는 것”이라며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의 과정에 감사하고 필요한 만큼 먹으며 채식을 지향하는 식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도 지구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상불사는 텃밭 외에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불자들에게 개인 가방과 ‘떡통’을 지참하도록 권하고, 공양은 뷔페식으로 준비해 각자 먹을 만큼만 담도록 한다. 식사 후에는 자신이 먹은 그릇을 직접 설거지하도록 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 2020년에는 불교환경연대와 녹색사찰 협약도 맺고 물과 에너지 절약, 자원순환 실천 등 다양한 생명살림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 상불사는 보유한 임야와 숲을 활용해 자연을 살펴보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있다. 사찰 주변의 숲에 사는 생명들을 찾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시민들과 나누며 환경에 대한 이해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동효 스님은 “기후위기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나부터 실천하면 그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며 “기후위기를 걱정하고 변화를 바라는 마음에 그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불사의 텃밭이 한 사람의 식탁을 넘어 지역의 삶을 바꾸고, 지역에서 나라로, 나라에서 세계로 생명과 나눔의 가치를 넓혀가는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을 위한 상불사, 나라를 위한 상불사, 전 세계를 위한 상불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남=김내영 기자

버려진 물건에 새 생명을, 지구 살리는 ‘수리보살’

도림사

자원순환 실천 도량

버려진 현수막 · 신문지는
가방 · 봉투로 업사이클링
“건강한 지구를 후대에”


도림사 주지 정찬 스님과 신도들이 완성한 폐현수막 가방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낡고 버려진 것들을 고쳐 쓰고 되살리며 지구환경 보호 실천에 앞장서는 도심 속 ‘수리보살(修理菩薩)’ 도림사가 불교 녹색환경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부산지역 제1호 녹색사찰인 도림사 주지 정찬 스님의 환경운동은 오직 실천이다. 망가진 것을 버리지 않고 만물에 깃든 불성을 일깨워 귀한 자원으로 되살리는 일상의 바느질이 곧 정찬 스님에게는 수행이다.

도림사를 대표하는 자원순환 실천은 폐현수막을 업사이클링(새 활용)한 ‘지구사랑가방’ 제작이다. 매립이나 소각 시 다량의 온실가스와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현수막은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꼽힌다.

정찬 스님과 신도들은 수거한 폐현수막을 고무대야에 담아 인체에 무해한 EM(유용미생물) 발효액을 섞어 직접 발로 밟아 세탁한다. 자연 햇볕에 바짝 건조하고 정성스레 닦아낸 천은 재단과 재봉 과정을 거쳐 튼튼한 가방으로 재탄생한다.

지난 3년 6개월간 도림사 사부대중의 손끝에서 완성된 가방만 9000개가 넘는다. 어린이집 원아들의 준비물 가방, 직장인 노트북 가방, 어르신 약 봉투 가방 등 쓰임새에 맞춰 다양하게 제작된 가방들은 지역 복지관과 초등학교, 요양병원 등에 무상으로 배포됐다. 명절 선물 포장재로도 쓰이며 일상 속 환경 교육 도구 역할도 해내고 있다.

자원순환 불사는 지역 전통시장 장보기 풍경도 바꾸고 있다. 법회를 마친 도림사 사부대중은 다 쓴 신문지를 접어 친환경 봉투를 만든다. 종이접기 방식만으로 뚝딱 만들어진 신문지 봉투는 1만 개를 훌쩍 넘어 인근 동래시장 내 과일 가게와 참기름 가게 등에 전달됐다. 특히 시장 내 참기름 가게에는 신문지 접는 방법을 직접 전수해 상인들이 자발적인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상인들은 손님이 가져온 장바구니에 신문지 봉투를 덧대어 물건을 담아주며 일회용 비닐 사용을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신문지로 친환경 봉투를 만들고 있는 모습.

가정 내 방치된 낡은 보자기를 묶어 다회용 장바구니나 천 주머니로 활용하는 운동도 펼치고 있다. 명절 사찰 나눔 물품을 포장할 때 일회용 비닐 대신 보자기 주머니를 사용해 쓰레기 배출을 원천 차단한다. 나아가 선별장에서도 골칫거리인 소형 폐플라스틱을 모아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플라스틱 방앗간 in 부산’ 프로젝트에도 동참하며 지역 내 친환경 소비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도림사의 환경 실천은 교육과 지역사회 정화 활동으로도 활발히 확산하고 있다. 정찬 스님은 부산 서구와 부산진구, 영도구 등에 위치한 복지법인 등을 찾아 강연하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또 2020년부터는 사부대중과 함께 마안산 사적공원 일대에서 쓰레기를 줍는 도심 속 숲 정화 활동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도림사의 생태적 행보는 사찰 운영 전반에 적용된다. 부처님오신날에는 플라스틱 연등 대신 분해가 쉬운 친환경 한지등을 밝힌다. 텃밭에서 무농약으로 직접 기른 수세미를 천연 수세미로 가공해 보급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낙엽과 섞어 자연 퇴비로 환원한다. 사찰 내 비닐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며 다회용기인 ‘떡통’과 개인 텀블러 지참을 생활화하고 있다. 지난 6월 5일에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31회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보전 유공 부산시장 표창을 민간부문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끊임없이 비우고 다시 쓰는 삶을 몸소 실천해 온 정찬 스님은 환경 운동이 불교의 본질적인 수행과 동떨어져 있지 않음을 거듭 역설했다.

정찬 스님은 “무심코 버리면 쓰레기가 되지만 다시 모아 정성껏 쓰면 소중한 자원이자 훌륭한 공양이 된다”며 “부처님께서 일체 생명이 존귀하다고 하셨듯 낡고 버려진 물건 하나에도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진정한 자비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가 훗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은 화려한 빌딩이나 돈이 아니라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지구뿐”이라며 “죽어서 아득한 극락에 가기를 바라는 것보다 지금 발 딛고 있는 여기 이 자리에서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며 사람들이 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살아 숨 쉬는 극락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가락고찰 佛母山 장유사
불교대학 졸업생 및
사부대중 일동
경남 김해시 대청계곡길 170-563(대청동)
전화 055)314-2799


현대불교신문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정토사 · 불교대학 · 극락원 납골당

◉ 울산 도심권 영구봉안 납골당 극락원 ☎(052) 212-7000
•시내에 위치, 왕래와 참배 용이 •쾌적한 최신시설 •사전 예약자 봉안비 할인
◉ 정토사 불교대학/ 대학원 1997년 개교 ☎(052) 274-3800
•1년 과정, 주·야간반, 절 하는 법부터 •경전반: 주·야간반, 1년 1경전
◉ 법회/ 신행/ 문화교실 ☎(052) 258-9944
초하루,보름,지장재일,관음재일, 다라니 기도, 금강경 독송, 법화경 전독기도
어린이회, 청년회, 신도회, 동문회, 청소년합창단, 여성합창단, 혼성야간합창단, 민화, 한국화, 마인드케어명상, 오카리나, 간화선 수행, 심념처 명상반 등
◉ 장학 봉사 복지단체 사)참좋은세상 ☎(052) 260-0707
울산 남구 문수로217번길 15(옥동) YouTube ‘울산정토사’

현대불교신문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재)한국불교총화종 총본산
천마산 수진사
이사장 남정
총 무 지오
신도일동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로 115-13(호평동)
전화 031)591-7710, 팩스 031)591-7121